

고려 유생의 하과와 사찰

황 인 규

동국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고려시대 유생의 교육기관인 사학 12공도(公徒)의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 한 철을 이용해 사찰에서 특별강습회를 실시한 하과(夏課)에 대해서 살펴본 논고이다. 사학인 12공도는 고려시대에 있어서 관학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관직에 진출에 있어서 중요 통로였던 과거의 출제자인 지공거 출신이 공도를 열었기 때문이다. 공도에서는 9경 3사를 비롯한 유교경전을 학습시켰으나 여름 한 철에는 사찰에서 특별강습회가 열렸다. 하과의 학습과목은 시부(時賦)를 짓는 것이었지만 사찰 가운데 9재(齋)의 교수과목 가운데 귀법사의 성명재나 일월사의 낙성재에서 볼 수 있듯이 9재의 교수과목별로 하과가 이루어진 듯 하다. 이는 공도의 설립자가 유교의 문신들이었으나 불교에서 연원하는 모임 공동체라고 할 향도(香徒)를 모방한 것이었고 여름 한철 사찰에서 하과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과가 이루어진 곳은 최충헌의 문헌공도가 이용한 귀법사를 비롯해 용흥사·귀산사·일월사·안심사 등 개경의 근처의 사찰로 나타나고 있다. 문집류에서 남아 있는 제 기록에 의하면 고려전기 하과가 실시된 사찰은 개경 송악산 기슭에 위치한 귀법사와 용흥사, 일월사였다. 그리고 고려 원나라 간섭기이후에는 역시 개경 근처의 귀산사와 안심사에서 하과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고려말 하과가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찾아지고 있어서 주목된다. 하과는 여름철에 사찰을 정하여 시부를 짓고 주연을 베풀면서 유생들간의 유대와 학습을 한 것인데 한천도회(夏天都會) 또는 도회(都會), 하과급작(夏課急作)이라고도 불리었다. 이는 사찰이 한적한 장소라는 공간적인 이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교문화권의 소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도와 하과를 주도한 지공거 출신자와 학생인 공도출신이 과거를 급제한 후에도 이들이 좌주문생의 관계를 이루었다. 특히 같은 해 과거급제자들이 동년회와 같은 모임을 결성하여 당대의 정치에 물론이고 교육 문화를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동년회 등을 통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조선시대와는 달리 고려의 수평 지향적 사회구조를 이루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고려말에 이르러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하과는 사찰에서 향교로 점차 장소가 바뀌어갔다. 결국 조선조 불교의 대탄압시책의 중요골격이 완성되었던 세종조에 사가독서제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주제어 : 사학 공도 하과 향도 귀법사 용흥사 귀산사 일월사 안심사 최충

I. 들어가는 말

고려왕조는 성조(聖祖)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보듯이 왕조가 ‘제불(諸佛)의 호위지력(護衛之力)’¹⁾으로 건국되었으므로 불교는 정신문화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제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다.

4세기 중엽 불교 유입후 최초의 사찰인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창건된 이래 사찰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었고 조선후기 서원이 그것을 대신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왕사와 국사제·진전사원(眞殿寺院)·비보사찰 등의 운용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불교국가였고²⁾ 고려의 사원은 보(寶)와 계, 교통 및 여관 등의 사회복지 시설의 운용은 물론 수원승도(隨院僧徒)나 사원의 장·처(莊·處) 등 국가의 정치행정 및 경제적인 분야에서 그 일조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원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신앙과 더불어 교육·출판 등의 측면도 담당하였다.

사찰의 교육역할 가운데 도서관 내지 독서당³⁾의 구체적인 실상은 별로 알려진 바 없는 것 같다. 예컨대 사찰이 조선시대 실록의 저장장소인 사고(史庫)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으나 고려의 실록의 사고였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최초의 고려 실록의 보관장소가 해인사였고⁴⁾ 그 이후 강화도의 선원사, 선산의 득익사(得益寺), 충주의 개천사(開天寺), 죽주의 칠장사(七長寺) 등의 사찰에 보관되었다.⁵⁾

본고에서는 사찰의 승려의 교육 기능 외에 유생의 교육기능으로서 하과(夏課)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과에 대한 연구는 과거제를 연구하는 가운데 일부로서 간략히 다루어졌을 뿐이다.⁶⁾

사찰에 독서당이 있었다는 사실도 신라말 고운 최치원의 독서당이나⁷⁾ 조선 세종대이후

1) 《고려사》 권2, 태조세가, 태조 26년, 4월조.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 (황인규, 《고려 裨補寺社의 설정과 寺莊 운영》, 《동국역사교육》 6, 1998.;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해안, 2004.)

3) 독서당에 대한 연구는 조선조 사가독서제로서의 독서당 연구가 거의 전부다. (김상기, 〈독서당(湖堂)고〉, 《진단학보》 17, 진단학회, 1955; 김상기, 〈독서당(호당)의 유래와 변천〉, 《향토서울》 4호, 1958; 이현희, 〈조선왕조 양반관료시대의 독서당고-그 도서관적 기능과 인재등용 예-〉, 《연구논문집》 4·5합, 성신여사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4) 《고려사》 권22, 고종세가, 고종 14년, 9월, 경진일조.

5) 《고려사》 권30, 충렬왕, 18년, 1월, 정사일조; 《고려사》 권134, 신우열전, 신우 2년, 9월조; 《고려사》 권134, 신우열전, 신우 7년, 7월조; 《고려사》 권135, 신우열전, 신우 9년, 6월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죽산현조.

6)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허홍식, 《고려과거제도사연구》, 일조각, 1981.; 조동원, 〈여대과거의 예비고시와 본고시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논총집》 8, 1974.

실시된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의 사찰인 진관사(津寬寺)와 장의사(藏義寺) 정도가 고작인 것 같다.⁸⁾

이러한 것은 현재 불교계가 처한 열악한 상황과 그로 인한 무관심 내지 몰이해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역사의 불완전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교육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게 할 것이다. 때문에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본고는 고려 후기 유불교체기에 있어서 문화 내지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을 사찰에서의 학습 내지 독서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⁹⁾

우선 고려 문종대 하과가 사찰에서 실시된 제 사정을 검토하여 그 의의를 추적하고 문집류에 나타난 유생들의 사찰 독서관련 기록을 종합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II. 고려의 사학 12공도와 하과

고려시대 하과는 고려시대 교육기관인 가운데 하나였던 사학(私學)에서 여름 한철 사찰에서 실시한 교육이다.¹⁰⁾ 사학의 발생은 공적 교육인 국자감 교육의 부진에서 오는 것이지만 국자감의 교육적 체제의 현실적 방향의 미비때문이기도 하다. 즉 오늘날 공적 교육기관 보다 학원이 대학입시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것과 같이 고려 광종대 실시된 과거는 관인의 입사(入仕) 등용문의 제일 관문이었지만 국자감은 과거를 준비하는데 별로 유용하지 못했고 과거를 주관하였던 지공거(知貢舉) 출신이 창립한 사학 12공도(또는 徒)¹¹⁾가 오히려 과거준비에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 사학에 몰렸던 것이다.¹²⁾ 그러한

7) 이종목, <최치원이 가야산 독서당에 붙인 詩>, 《문헌과 해석》 1, 태학사, 1997.

8) 《연려실기술》 별집 권7. 官職 典故, 독서당.

9) 본고에서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사학 12공도나 하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존재양상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그쳤음을 밝혀둔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천착은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10) 이만규, 《조선교육사》 1, 거름, 1988; 이성무, <선조의 성균관연구>, 《역사학보》 35·36합, 1967.; 이병휴, <여말선초의 과거교육-서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67, 1975.

11) 흔히 사학 12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徒가 향도적 결사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고에서는 公徒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12) 고려사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박성봉,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과 사학 12도>, 《사총》 2, 1957; 박성봉, <국자감과 사학>,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75. 박청호,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과 사학 12도의 공적>, 《사총》 2, 1957; 박찬수, <사학 12도의 변천>, 《택설 허선도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손인수, <한국사학의 전통과 최충의 위치>, 《최충연구논총》,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4; 신천식, <고려시대 사학 12도에 대한 연구>, 《서암 조항래화갑기념

사정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다음의 기록이다.

私學. 문종 때에 太師中書令 崔冲이 후대들을 모아 열성으로 교육하였는데 선비(靑衿)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九齋로 나누었는데 곧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大和, 待聘이었으며 이를 侍中崔公徒라고 불렀다. 양반의 자제(衣冠子弟)들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徒中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절간을 얻어서 夏課를 조직하고 도중에서 급제하고 학업이 우수하며 재능이 많으나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택하여 教導로 삼았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九經과 三史이며 간혹 先達이 왔을 때에는 촛불에 글을 그어 시 짓기 내기를 한다. 지은 시는 차례대로 勝을 내어 이름을 부르고 들어가서 곧 술자리를 배운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좌우로 벌려 있고 술상을 받들고 오고 가는데 예의가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와의 사이에 질서가 있고 종일토록 시 읊기를 서로 주고 받으니 보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후부터는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면 다 九齋에 적을 둔 사람이었는데 이를 崔文憲公徒라고 불렀다.

또 이밖에도 문관들로서 徒를 세운 자가 있는데, 곧 弘文公徒는 시중 鄭倍傑이 세운 것이다. 다른 명칭으로 熊川徒라고도 한다. ... 이에 문헌공 최충도를 합하여 세상에서 12徒라고 일컬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헌공 崔冲徒가 가장 흥성하였다. ...¹³⁾

이러한 내용은 《고려사》 최충열전에도 실려 있는데¹⁴⁾ 이에 의하면 사학이 발달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학 12공도의 공도는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그리고 사찰에서 여름 한철 특별강습회라고 할 하과가 사찰에서 이루어지게 된 사정은 어떠한 것인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사학 12공도는 과거를 주관한 최고의 책임자라고 할 지공거 출신들로 이루어졌으므로 당대 최고의 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사학 12공도의 최초의 창립자 문헌공 최충도와 그를 모방하여 창립된 11공도를 합하여 12공도라고 불렀는데 모두 개경에 위치하고 있다. 이 12공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侍中 鄭倍傑의 弘文公徒(熊川徒), 參政 盧旦의 匡憲公徒, 祭酒 金尙賓의 南山徒, 僕射 金無滯의 西園徒, 侍中 殷鼎의 文忠公徒, 平章 金義珍(혹은 郎中 朴明保)의 良愼公徒, 平章 黃瑩의 貞敬公徒, 柳監의 忠平公徒, 侍中 文正의 貞憲公徒, 徐碩의 徐侍郎徒, 龜山徒¹⁵⁾

한국사학논총, 1992; 신천식, 《고려 교육제도사 연구》, 형설출판사, 19833; 신천식,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1995.

13) 《고려사》 권74, 선거2, 과목, 私學.

14) 《고려사》 권95, 최충열전; 《고려사절요》 권5, 문종 22년, 9월조.

이 12공도의 각 이름은 설립자의 이름을 따오거나 지명을 따서 지었다. 이처럼 설립자나 그 소재지를 부각시켜 교육기관의 명칭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역사상 최초이다. 이처럼 학교명이 개인이나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것은, 같은 사학계통인 조선조의 서원의 이름과는 다소 다르다.¹⁶⁾

공도의 창립자인 지공거와 공도의 출신학생인 과거 급제자인 문생(門生)들간에 끊어질 수 없는 좌주문생의 사제지간의 전통이 생겼고 결국 학벌적 권위로 이어졌다. 특히 지공거의 권한이 커지는 무신집권기 이후는 좌주·문생의 관계가 부자간과 같이 긴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되었고 좌주가 영달하면 그의 문생도 출세하였다. 또한 같은 해 급제는 동년회와 같은 결사체를 맺었다. 이와같이 좌주·문생의 관계는 문벌을 형성하여 정치를 주도할 정도였지만 한편으로는 동년회 등 동년에 대한 의식은 수평적 관계의 전통이 정착되었다. 이는 학통을 중시한 조선시대는 수직적인 관계가 관인집단의 갈등을 일으켜 사회와 당쟁을 불러오게 하였던 점과 다르다.¹⁷⁾

이러한 사학의 12공도의 전통은 이미 선학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도(香徒)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향도는 여러 가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의 유입후 신앙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신도들의 결사이다.¹⁸⁾ 12공도에서 실시한 하과도 사학의 생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여름철이 오면 사찰을 빌려서 공부를 하였던 일종의 학사제도이며, 하과를 조직한다고 했으므로 향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운동가이면서 근현대 역사가로 잘 알려진 단재 신채호는 사학 12공도의 연원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설파하였다.

고려초 중엽에는 화랑이 그 사상으로만 전할 뿐 아니라 실제 그 습가 존속하여 왔으므로 화랑을 반대한 유가에서도 그 명칭과 의식을 많이 盜取하였으니 그 하나 둘의 예를 들면 崔公徒 盧公徒 등은 화랑의 原郎徒 永郎徒를 倣한 것이며, 학교의 靑衿錄은 화랑의 風流黃卷을 倣한 것이다. 그러나 사가의 삭제를 당하여 화랑의 사적이 茫昧하니 어찌 嗟歎할 바가 아니라.¹⁹⁾

15) 《고려사》 권74, 선거2, 과목, 사학.

16) 김일환, 〈최충의 사학의 교학정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10, 1989, 222~223쪽.

17) 허홍식, 〈제 2장 불교사회사에서 본 중세의 범위〉,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일조각, 1994. 65쪽.

18) 향도에 대한 논고는 다음과 같다(이태진, 〈예천 개심사 석탑기의 분석 - 고려전기 향도의 일례 -〉, 《역사학보》 53·54합, 역사학회, 1972; 김필동, 〈삼국~고려시대의 향도와 계의 기원〉,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채웅석, 〈고려시대 향도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 《국사관논총》 2, 1989.; 이해준, 〈향도조직〉,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94.; 구산우, 〈고려전기 향도의 불사 조성파 구성원규모〉, 《한국중세사연구》 10. 한국중세사학회, 2001; 한보광, 〈신앙결사의 유형과 그 역할〉, 《불교학보》 30, 1993.

19) 申采浩(1880~1936), 〈조선역사상 1천래 제일 대사전 3. 郎儒佛 三敎의 정치사상 투쟁〉, 《조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한국사연구초》, 을유문화사, 1974. 155쪽.

필자는 단재가 지적한 사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특히 이러한 것을 역사가에 의해 삭제당하여 없어졌던 함은 유가에 의해서이다. 오늘날도 불교가 타종교에 의해 교세를 피지 못한 상황에서의 단재의 이러한 지적이 전혀 맞다. 그럼에도 이를 복원할 의도가 전혀 없는 같아 개탄스럽기 그지없으며, 본 논문의 작성 동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12공도가 국선인 화랑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고 12공도도 다음 인용된 글에서 보듯이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왕이 乾元殿에 나가서 조신들의 축하를 받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 불교를 숭봉하며 형벌을 조리 있게 밝히고 선악에 대한 상벌을 정확히 할 것이며 삼보의 재산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며 四仙의 유적들에 영예의 칭호를 더 붙여야 할 것이다. ... 이른바 國仙에 대해서는 근래에 벼슬길로 통하는 곳이 많아져서 국선으로 되려는 자가 없으므로, 대관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실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²⁰⁾

이미 선학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종 11년 기록에 보이는 사선(四仙) 즉 네명의 화랑인 영랑·슬랑·안상·남랑이며 국선은 화랑이다.²¹⁾ 또한 원나라 간섭기에 민적(閔頌)의 전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도 그러한 내용이다.

... 나라 풍속에 어린 아동들은 으레히 승려에게서 구두법(句讀法)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面首란 것이 있어서 승속 모두 그를 받들어 仙郎이라 불렀는데 따르는 자가 때로는 천 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그 풍속은 신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적은 10세 때에 집에서 나와 사찰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천성이 영민하여 한 번 배우면 곧 그 뜻을 환하게 알았다. 눈썹이 그린듯 하였고 풍채가 아름다웠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하였다. 충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보았는데 궁중에서는 그를 國仙이라고 불렀다.²²⁾

위의 글에서 보듯이 최충(984~1068)의 문헌공도를 창립한 때보다 300년이 더 지난 시기인 원나라 간섭기에도 국선의 유풍이 전해지고 있었다.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것으로, 천여명의 승속이 모여 면수(面首)가 이끌었는데 그를 선랑이라 불렀다는 것이며, 민적(1269~1335)은 충렬왕으로부터 국선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아닌 향도를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결사는 대체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4세기 말에 동진의 혜원(慧遠, 334~416)이 중심이 되어 백련사를 결성한 것을 신앙결사의 시초로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유신의

20) 《고려사》 권14, 예종세가, 예종 11년, 4월, 경진일.

21) 이만규, 《제 6장 고려시대의 교육》, 《조선교육사》 1, 거름, 1988. 101쪽.

22) 《고려사》 권108, 열전 閔宗儒 頌; 崔瀼, 《故密直宰相閔公行狀》, 《출고천백》 권2.

용화향도(龍華香徒)에 기원을 두는 것이다.²³⁾ 이렇듯 최충의 문헌공도와 그것을 모방해서 생긴 사학 12공도의 도 자체가 향도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말 이래 최치원→최승로→최충을 유학의 정통사상을 계승했던²⁴⁾ 이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은 유불사상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최치원은 난랑비문서에서 풍류 즉 국선을 말하고 있고 그 자신이 말년에 해인사와 단속사의 독서당에서 공부를 하였고²⁵⁾ 최초의 불교를 비판하였던 인물인 최승로 역시 불교의 가호를 입었다고 생각하였고 최충 역시 불교적 성향을 지녔다는 것은 다음의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신이 삼가 內典을 살펴보니 招提라는 것은 시방의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모아 佛法을 크게 널리 드날리며 머무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장자》에서는 ‘蓬廬를 설치하여 仁義를 보인다’고 하였고, 《管子》에서는 ‘나그네를 맞이하여 공무로 다니는 사람과 사사로 다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

마침내 奉先弘慶寺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는데, 공사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룬 것이었습니다. (절의) 형세는 하늘에서 날아온 듯 하였고, 불상을 모신 전각과 불경을 봉안한 누각 등은 아름답고 기이하여 마치 도솔천인 듯 하였습니다. 오리모양의 종과 기러기 모양의 탑은 웅장하고 엄숙하여서 멀리서 보면 (인도의) 나란타사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사찰이 크게 일어났으니 실로 천대를 이어 (이곳에서) 불법이 이어질 것입니다. …²⁶⁾

위의 글에 의하면, 최충은 내전에 의하건대 절이라는 곳이 시방의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모아 불법을 크게 널리 드날리며 머무르는 곳이라 규정하고 인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사찰이 《진서(晉書)》를 인용해 나그네를 맞이하여 공무로 다니는 사람과 사사로 다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 준다는 곳이 되어야 한다²⁷⁾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 짓는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가 그러한 사찰인데 그 부속기관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찰의 건물이 낙성되자 도솔천과 날란다사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충이 이미 중세 불교중흥의 도량이라 알려진 날란다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태조 12년 천축에서 삼장법사 마후라가 방문하였고²⁸⁾ 태조 21년에도 서천축에서 승려가 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²⁹⁾ 이

23)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열전, 상.

24) 이는 이병도·김충열·박성봉 등 여러 선학이 주장하는 신라말 이래 고려초 유학의 계보이다.

25) 최치원, 〈題伽倻山讀書堂〉, 《동문선》 권19, 칠언절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진주목, 불우.

26) 최충, 〈奉先弘慶寺事蹟碣碑〉, 《한국금석전문》 중세 상.

27) 위와 같음.

28)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2년, 6월조.

승려가 서천축 마갈타국 출신의 홍범대사 질리부일라(啞哩嚩日羅)였다.³⁰⁾ 홍범은 바로 최충이 지은 원공국사비문에도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 그 때 마침 (인도의) 弘梵三藏이 舍那寺에 와서 있었으므로 그를 찾아가 스승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였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 삭발하고 득도하였다. 그 때부터 스님을 시봉하면서 바야흐로 경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를 지나 弘梵이 바다를 건너 (중인도)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따라가지 못하고 처소를 옮겨 廣化寺 景哲和尚을 모시면서 부지런히 수업하였다.…³¹⁾

위의 글에 보듯이 지종이 인도의 승려 홍범에게 출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직산의 홍경사가 날란다사와 같다고 했던 사실과 더불어 교육적인 측면을 중시했으리라 보여진다. 더욱이 지종이 왕사에 책봉된 사실이 특기되고 있다. 즉 현종이 위로 현황(軒皇)으로부터 아래로 주발(周發)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보(師保)의 도움을 받아 그 법력으로 나라를 복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종을 왕사로 책봉하였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최충은 불교 내지 사찰에서 교육적인 요소를 끌어와 향도 단체인 문헌공도를 만들었고 나아가 사찰에서 일정기간 학습하는 하과도 창설하였다고 하겠다.

최충이 세운 사학은 시중 최공도이나 9재학당이라 하였고 최충이 죽은 뒤에는 그의 시호를 따라 문헌공도라고도 불리었다. 국자감과 같은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과에서 생도를 가르치는 선생을 교도라고 하였다. 생도들 가운데서 급제하고 학업이 우수하며 재능이 많으나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택하여 삼았다고 한다. 교도의 책임하에 생도들이 배우는 것은 《9경(九經)》과 《3사(三史)》였다. 그렇지만 하과에서 생도들은 그들의 선배격인 선달(先達)이 왔을 때에는 각축부시(刻燭賦詩), 즉 촛불에 글을 그어 시 짓는 내기를 하고 그 시는 차례대로 방(榜)을 내어 이름을 부르고 들어가서 종일토록 시 읊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술자리가 배풀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생도와 선달과 교도 사이에는 장유의 예의와 질서가 있었고 그러한 사제지간의 정다운 광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생각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재에 적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향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최충의 문헌공도가 가장 흥성하였는데, 이를 모방하여 11공도에서도 하과를 실시했음은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29) 《고려사절요》 권1, 태조 21년, 3월조.

30) 안정복, 《동사강목》 제6상, 태조 21년조.

31)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碑〉, 《한국금석전문》 중세 상;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2)》

32) 위와 같음.

나는 들으니, 儒門의 先賢들이 十二徒를 만들어 徒마다 齋를 설치하고 그 문도가 많
건 적건 간에 늘 여름에 한 차례씩 모여 課業을 익히며 그 명칭을 夏天都會라 하였
다.³³⁾

이처럼 하과는 유문(儒門)의 선현들이 12공도를 만들어 도마다 재(齋)를 설치하고 그 문도
가 많건 적건 간에 늘 여름에 한 차례씩 모여 課業을 익히며 그 명칭을 하천도회(夏天都會,
또는 夏課急作)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학 12공도는 예종 5년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 과거에 직접 응
시할 수 있었던 12공도의 유생들과 기타 문벌 자제들도 국가감에 3년 동안 수학해야 했다.
따라서 사학 12공도는 종래 대학의 위치에서 국가감에 예속되는 위치로 전락되지 않을 수
없었다.³⁴⁾ 한편 과거준비라는 사적인 강습만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종 17년 6월에 결정하였다. “東堂監試가 있는 후에는 모든 徒의 유생들이 총 회합
할 시일을 國子監에서 알려 주어 50일 동안 학습시킨 다음 해산시킨다. 그런데 절에
모여서 30일 동안 학습하고 私試에서 詩 15수 이상을 지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敎導가
정밀히 이를 심사하여 각기 그 이름 아래에 接寺 며칠, 私試 몇 수라고 기록하고 의견
을 붙여 보고한 다음에야 비로소 모임에 참가하게 한다.

모든 도의 敎導로서 接所를 떠나지 않고 학업을 장려한 자에게 대하여는 學官이 결
원이 있을 때에 그를 우선적으로 그 자리에 임명함으로써 표창하는 뜻을 보인다.”³⁵⁾

위의 글에 의하면 과거의 최종시험인 동당시(東堂試, 禮部試, 省試)가 끝난 후 모든 12도
의 제생들은 50일 동안 학습시키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이전에 사찰에서의 30일간 학습하
고 사시(私試)에서 시 15수 이상을 지은 자들 가운데 심사하여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과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지제고(知制誥)로 하여금 시험관을 삼아 학생들의 실
력을 시험하도록 하였다.³⁶⁾ 그후 언젠가 이러한 것이 시행이 잘 되지 않자 공민왕대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공양왕 3년(1392) 6월에 사학 12공도와 하과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하과가 이루어지는 곳이 사찰로 선정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인종 초년에 고려
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송나라 사신 서공의 다음과 같은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 國子監을 세우고 儒官을 선택한 인원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으며, 黌舍를 새

33) 이규보, 《金學士 敍에게 並序》, 《동국이상국후집》 권7, 고을시 97수.

34) 신천식, 〈고려사학 12도에 대한 연구〉,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1995.

35) 《고려사》 권74, 선거2, 파목, 사학.

36) 위와 같음.

로 열어 太學의 月書季考하는 제도를 꼭 잘 지켜서 諸生의 등급을 매긴다.

위로는 조정의 관리들이 위의가 우아하고 문채가 넉넉하며, 아래로는 민간 마을에 經館과 書社가 두 셋씩 늘어서 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의 자제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스승으로부터 경서를 배우고, 좀 장성하여서는 벼를 택해 각각 그 부류에 따라 절간(寺觀)에서 강습한다. 아래로는 군졸과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도 鄉先生에게 글을 배운다. 아아, 훌륭하기도 하구나!....³⁷⁾

이에 의하면 마을마다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둘 셋 정도가 있으며, 미혼 자제들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고 장성하여서는 벼와 함께 부류에 따라 사찰에 가서 강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도경》의 마을의 경관이나 서사에서 경서를 배우고 난 후 벼와 함께 사찰에 가서 강습한다는 것은 바로 하과를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민간의 마을에 있는 경관이나 서사는 고구려의 경당(扁堂)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³⁸⁾ 서사는 서당의 전신인 서재(書齋)인데 그에 대한 최초의 글은 다음과 같다.

성종 11년 12월에 관리에게 명령하였다. “경관이 좋은 장소를 택하여 書齋와 學校를 크게 세우고 적당한 토지를 주어서 학교의 식량을 해결하며 또 國子監을 창설하라.”³⁹⁾

이러한 서재는 이인로가 오늘날 경기도 부평인 계양현의 관리로 복무하다가 용산의 한언국의 서재에 가서 묵었다는 기록도 찾아진다.⁴⁰⁾ 그렇지만 《고려도경》의 마을의 경관이나 서사와는 달리 한언국의 서재는 성종대 서재와 같이 경관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이렇듯 사찰이 단지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하과의 장소로 택하게 된 것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과와 사찰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고려중기와 고려말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Ⅲ. 고려중기 유생의 하과와 사찰

그러면 하과가 이루어진 사찰은 어떤 사찰일까? 최충의 문헌공도는 하과의 장소를 귀법사(歸法寺)로 정하였는데 다른 11공도의 경우도 사찰에서 하과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집류를 비롯한 여타의 기록들에 의해 하과가 열린 사찰은 귀법사 외에 용흥사(龍興

37) 서긍, 《儒學》, 《선화봉사고려도경》 권40, 同文.

38) 《구당서》 권149, 동이전, 고려조.; 《신당서》 권145, 동이전, 고려조.

39) 《고려사》 권74, 선거3, 학교1

40) 이인로, 〈파한집〉 상.

4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한강조.

寺)·일월사(日月寺)·귀산사(龜山寺)·안심사(安心寺)로 나타나고 있다.

귀법사에서 하과가 열렸다는 것은 《고려사》 사학조에 실려 있을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하과의 실시 장소였다. 귀법사는 963년(광종 14)에 왕이 대원력을 발하여 국찰로서 송악산 아래에 이 절을 짓고 친히 승려들을 공양했으며, 균여(均如)를 초대주지로 삼았다. 또한 광종 이후 목종·선종·의종 등 여러 왕의 행차가 잦았으며, 반승이나 수륙회 등 중요한 법회의식이 거행되어 당시로서는 최대의 국찰이었다. 때문에 귀법사에 하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하과가 실시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이규보(1168~1241)의 문집에서 찾을 수 있다.

임인년 대정 22년(1181) 공의 나이 15세.

이해 6월에 또 夏課 急作을 지었는데 이때 마침 誠明齋 안에 翰林에 제수된 자가 있어 ‘內直玉堂’ 네 글자를 篇題로 삼고 韻을 내었다. 공의 詩는 … 하였는데, 先達 咸淳 등이 모두 탄복하고 칭찬한 다음, 이 시를 첫째로 뽑아 1등에는 오직 공만이 차지하였으니, 그 뛰어난 점을 보인 것이다. 이 시는 어릴 때 지은 것이어서 문집 속에는 실리지 않았다. ⁴²⁾

이규보는 그의 나이 15세에 하과급작을 지었는데 함순(咸淳)이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하과를 한 곳은 귀법사이고 여기서 매년 관동들이 하과하던 곳이라 밝히고 있고⁴³⁾ 다음의 글에서 보듯이 김창(金敞)도 귀법사에서 하과를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들으니, 儒門의 선현들이 卜二徒를 만들어 徒마다 齋를 설치하고 그 문도가 많건 적건 간에 늘 여름에 한 차례씩 모여 과업을 익히며 그 명칭을 夏天都會라 하였다 하는데, 요즘에는 국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풍습이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 나의 齋에서 夏課를 이루게 되었다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른 齋에서는 비록 이와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곧 儒風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라, 다른 齋도 이 때문에 흥기될 것이니 다시 무엇을 걱정하라? 이는 모두가 尙書學士가 지도하고 이끈 덕택이다. 이 어찌 경사가 아니라? 삼가 古詩를 지어 보내노라.⁴⁴⁾

위의 글에 의하면 12공도 마다 재를 설치하고 여름철에 한 차례씩 모여 과업을 익혔다고 한다. 당시 국가의 어려움으로 하과가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다시 이규보의 재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상서학사 김창이 교도를 맡아 하과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하과는 귀법사 뿐만 아니라 귀법사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던 용흥사에서도 열렸다.

42) 李奎報(1168~1241), 《동국이상국집》 〈年譜〉.

43) 이규보, 〈歸法寺의 시냇가에서 느낌이 있어〉, 《동국이상국전집》 권14, 古律詩, 〈李春卿〉, 《청장관전서》 권33, 청비록 2.

44) 이규보, 〈金學士 敞에게 並序〉, 《동국이상국후집》 권7, 고율시 97수.

十二公徒의 冠童들이 매년 여름에 산림에 모여 학업을 익히다가 가을이면 파했다. 그 때에는 대개가 龍興寺와 歸法寺에 우거했다. 어느날 저녁 가을 하늘엔 달이 밝게 비추고 상쾌한 기운이 사람들에게 젖어들었다. 司直 咸淳 先達 李湛之 玉和遇 등이 冠童 예닐곱 명을 데리고 귀법사의 돌다리 위에 모여 작은 주연을 열었다. 45)

위의 글에 의하면 최충의 문헌공도 뿐만 아니라 12공도의 관동들이 용흥사와 귀법사에서 하과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귀법사와 용흥사는 주로 개경 근교에 위치한 사찰로 귀법사와 용흥사는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서로 가까이 있었던 사찰이다.⁴⁶⁾ 용흥사는 어떤 사찰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임춘과 백분화 등 문인이 그곳의 승려들과 노닐 사실이 전하고 있다. 임춘이 지은 시의 제목에 의하면 친구와 함께 노닐었는데 용흥사 해운방(海雲房)에서 확(確)이란 승려가 시를 칭하여 각자의 운을 주었다고 한다.⁴⁷⁾ 이는 하과의 한 장면일 가능성이 많은데 다음의 시문에서 그러한 면을 찾아 볼 수 있다.

돌 병풍 바위 문이 꾸밈새 필요 없는데, 풀·연기·이끼·이슬이 자연히 향기롭네.
흰 구름에 시내라 침침한데 잔나비 소리 그쳤고, 조각달 소나무 높는데 학의 꿈이 길
구나. 이미 陶潛과 함께 慧遠을 이끌었으니, 山簡처럼 襄陽으로 갈 것은 없네. 밤은 깊
고 술병은 비었고 북두(北斗) 자루 떨어졌는데, 취해서 쓴 글 두어 줄이네. 48)

백분화(1180~1224)는 참선거사(參禪居士)로, 1206년(희종 2) 조계종의 인재를 선발을 담당하였고 그의 아들이 승려 희심(希諡)이다.⁴⁹⁾ 백분화는 이춘경(李春卿, 문장로(文長老)와 함께 용흥사에서 노닐었는데 광명사의 승려 문장로가 주는 운으로 시를 읊었다. 문장로는 이규보와 교류한 도우로 대선사 혜문(惠文)이다. 선종의 가지산문 출신으로 사대부로부터 월송화상(月松和尚)으로 불렸던 승려이다.⁵⁰⁾ 시의 내용으로 보아 하과의 모습을 담고 있는 듯 한데, 결사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하였던 중국 동진의 고승 혜원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귀법사와 용흥사 외에도 일월사에서 하과가 열렸던 것을 다음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皇統 3년 계해(인종 21년) 사월에 承宣 金이 聖旨를 받들어 두 令公으로 하여금 명

45) 최자, <보한집> 중.

4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허홍식, 《고려 과거제도사 연구》, 일조각, 1981.

47) 林椿, <九月五日 與友人遊龍興寺海雲房 確師求詩 分韻得閣字>, 《西河先生集》 卷2 고을시 63.

48) 白賁華(1180~1224), <夏日 與李翰林春卿 文長老遊龍興寺 山頭月夜小酌 文長老有詩 次其韻>, 《南陽先生詩集》 卷上, 詩;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하.

49) 이규보, <京山府副使禮部員外郎白公墓誌銘>, 《동국이상국전집》 卷36, 묘지.

50) 이규보, <文禪師哀詞>, 《동국이상국전집》 卷37, 哀詞.

령을 받고 日月寺의 樂聖齋 학당에서 諸生과 함께 강습하였는데 윤 사월 초팔일에 聯句를 짓게 되었다.

內侍 崔山甫가 溪字를 부르니 바로 “시냇물은 흐르고 흘러서 항상 學海를 하고” (明宗) “꿈결에 놀라듯 천안을 뵈음이 기쁘네”(金淑淸) 라고 지었다.

또 絲字를 부르니 바로 “구름 가에 신월은 눈썹처럼 곱구나”(金子稱) “시냇물은 솟을 울리며 먼데서 오고”(上令公) “옛 구름은 돌에 부딪쳐 높은 봉우리에 끼어 있네”(지금의 尙純) “산봉우리는 여기저기 창을 버려 세운듯 하네”(上令公) “버들은 휘늘어져 실을 걸어 놓은 듯 하네” 라 했다. 그 이튿날 大內에 들여다가 왕이 보셨다.⁵¹⁾

위의 글에서 보듯이 인종 21년 일월사에서 하과를 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하과는 윤 4월 초팔일에 명종의 명으로 시행되었는데 명종과 김숙칭, 김자칭 등 제생들이 참여하였다.

일월사는 고려 태조 5년(922)에 궁성 서북편인 송악산 기슭에 세워진 사찰이다.⁵²⁾ 숙종이 후비와 태자를 데리고 이 절에 행차하였던 사실⁵³⁾로 보아 왕실의 중요사찰이었던 같다. 때문에 이 사찰에서 하과가 열리었다고 생각되는데 경내에 낙성재 학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이승휴(1224~1300) 1235년(고종 22) 희종의 셋째 아들 원정국사 경지의 방장실에서 독서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9살(고종 19, 1232년)에 처음으로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그 뒤 3년만에 희종의 3째 아들 圓靜國師(이름은 鏡智)의 方丈으로 들어갔다. 國師는 세상에서 말하는 바 名儒인 申誥를 맞이하여 左傳과 周易을 수업을 받게 하였다...

夏課場에서 더위병을 들은 때부터 나는 박항·박추와 공문서를 가지고 樂聖齋 都會所 燕尾樓에서 노닐었다. 冠童들이 기뻐하며 친밀하게 위로하며 전송하였다. 술이 취함에 따라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길가면서 울며 돌아왔다...⁵⁴⁾

이승휴는 9살인 고종 19년(1232년)에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그 후 3년(1235년)후 원정국사 경지의 방장실에서 그의 소개로 신서(申誥)에게 《좌전》과 《주역》을 배웠다고 한다. 방장은 사찰의 경내이고, 하과가 열린 원정국사 경지의 방장은 강화도 사찰이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그곳은 강화도 연미정(燕尾亭) 낙성재(樂聖齋)가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고종 31년(1244)에 시랑李宗주(李宗冑)에게 명하여 구재의 생도를 이곳에 모아놓고 하과를 시켜

51) 이인로, 《파한집》 권상.

52) 《고려사절요》 권1, 태조 5년, 4월조. “創日月寺于宮城西北”;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하.

53) 《고려사절요》 권6, 숙종 6년, 4월조.

54) 李承休, 《病課詩 并序》, 《동안거사행록》 권1, 행록.

55명을 뽑았던 곳이기 때문이다.⁵⁵⁾ 이승휴는 국도 강화도 뿐만 아니라 한 지방의 열린 하과에도 참여하였다.

일찍이 中原에서 잠시 모실 수 있었는데, / 한 번 기뻐했음은 오히려 꿈에서 처음 만난 듯 하였네.

백의를 여러 번 불러 고상한 잔치를 열었고 / 어린 붉은 치마 미인들에 술잔을 권하게 하였다.

가장 어린 소년으로 시험을 보았는데 / 여러 선비들 앞에서 으뜸을 차지했네. ...⁵⁶⁾

위의 글은 이승휴가 17세 때인 1241년(고종 28) 원부(元傅, ?~1287)가 충주지방의 관리로 있을 때 유생 120여명을 모아 개최한 하과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다. 하과가 지방에서 열린 중요한 사료 가운데 하나인데 하과가 열린 곳이 밝혀져 있지 않다. 다음의 김구도 그의 고향 부령에서 열린 하과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金坵의 字는 次山이요, 처음 이름은 百鑑이었는데 扶寧縣 사람이었다. 그는 어려서 부터 시와 글을 잘 지었으며 夏課에서 그의 동무들 중에서 그 이상 더 우수한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가 후에 장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⁵⁷⁾

고종 때에 과거에 제2위로 급제하였는데 知貢舉 金仁鏡이 그를 1위에 놓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는데, 그것은 자기도 역시 이전에 2위로 합격하였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和范이 傳衣하였던 옛일을 말해 주면서 김구를 위안하였다. ...⁵⁸⁾

위의 글에 의하면 지포 김구(1211~1278)는 하과에서 모두 장원을 밟았으나 제2등으로 급제하였다고 한다. 그는 불교시문을 적지 않아 지을 정도로 호불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⁵⁹⁾

5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경기, 강화도호부.

56) 이승휴, 〈元小卿이름은 傅, 꿈은 충주 관리로 있을 때 영내의 유생을 모아 夏課를 열었다. 모두 120여명이었는데, 나는 당시 17세로 이 회에 참석이 허용되었다.〉, 《동안거사집》 행록 1.

57) 〈金坵 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에는 “年十七中成均試 二十二舉春官擢乙科第二人及第時 座主金貞肅公亦是第二人 因語傳衣鉢 古事大加寵”라고 하여 김구가 17세에 成均館試에 급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8) 《고려사》 권106, 김구열전.

59) 《止浦先生文集》 卷3, 疏, 〈內殿行百座仁王說經道場疏〉. 《동문선》 권110, 疏; 《止浦先生文集》 卷3, 疏, 〈洛山觀音慶讚疏〉, 《동문선》 권110, 疏; 《止浦先生文集》 卷3, 疏, 〈內殿行金經說經疏〉; 《止浦先生文集》 卷3, 疏, 〈萬德社開設冬安居法會疏〉: 《동문선》 권111; 《止浦先生文集》 卷3, 疏, 〈內殿請說禪文〉; 《止浦先生文集》 卷3, 碑銘, 〈臥龍山慈雲寺王師贈諡眞明國師碑銘〉: 《동문선》 권117, 碑銘.

그래서 당시의 실권자 최항의 명을 받아 《원각경》을 인쇄할 때 발문을 짓게 하였는데 그가 쓴 시가 거슬러 좌천을 당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부 상서우복야 김신작(金新作)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⁶⁰⁾ 그의 부인 처는 83세가 되어 노환으로 임종하기 하루 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이름을 향진(向眞)이라고 하였다. 그의 막내아들 충장(冲壯)은 머리를 깎고 조계종의 승려인 안화(安和)大禪師의 제자가 되었다.⁶¹⁾ 위의 원부와 김구가 하과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곳이 사찰이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김구처럼 불교적 분위기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아 하과가 이루어진 곳은 역시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고려 후기 사대부의 하과와 사찰

고려말에 이르러 사찰에서의 하과가 시행된 곳은 귀산사와 안심사가 찾아지고 있다. 먼저 원나라 간섭기 귀산사에서 열린 하과는 다음과 같다.

왕이 龜山寺에 가서 九齋의 학생들이 하과를 시찰하였고 여러 학생들이 시를 지어 드리니 왕이 과실과 술을 주었다. ⁶²⁾

충렬왕 11년(1285) 왕이 구재의 하과를 시찰하였다는 내용이다. 귀산사는 송악산 소격전 동쪽 옆에 있었던 사찰로, 고려 태조 12년에 창건되었다.⁶³⁾ 역대의 왕실에서 행차가 끊이지 않았다. 이규보가 귀산사 방장 찬사(璨師)와 시를 주고받은 사실이 남아 전하고 있는데 이도 하과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한다.⁶⁴⁾ 특히 귀산사는 충목왕의 진전사원으로 왕의 기재(忌齋)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⁶⁵⁾ 때문에 고려 후기 하과가 귀산사에서 열렸다고 생각된다.

시문에 의하면 유항 한수(柳巷 韓修, 1333~1384)가 광양군 이무방(1319~1398)을 만나 하과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귀산사에서 각축부시를 하고 교관이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기의 참여자는 한수(1333~1384)의 둘째 아들 한상경(1360~1423), 이색의 아들 이종학(13610~1392)과 이종선, 문생 송문중 그리고 방문자 김제·강희중·신권·박관·유겸 등이 었다.⁶⁶⁾ 그런데 당시 귀산사에서 하과가 향도의 결사체로서 시행되었다. 예컨대 공민왕이

60) 《고려사》 권106, 김구열전.

61) 〈金坵 墓誌銘〉, 〈金坵 妻 崔氏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62) 《고려사》 권30, 충렬왕세가, 충렬왕 11년, 6월, 을축일조.

6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64) 이규보, 〈次韻璨師〉, 《동국이상국전집》 卷1; 이규보, 〈龜山寺璨師方丈 十五夜翫月 以詩律輸君 一百篇爲韻予得律字〉, 《동국이상국전집》 卷1.

65) 이색, 〈臘月初五日 忠穆王忌辰也 設齋龜山寺 宰樞入眞殿庭下 肅拜而退 臣穡因有所感〉, 《牧隱詩稿》 卷20 詩.

학문을 배풀기 위하여 배운 승당회(升堂會)가 숲을 이룰 정도 였다고 하면서 정충이 연사(蓮社)에서 청금 즉 선비를 보았다고 한다. 이 연사 역시 동진의 고승 혜원의 결사를 모방한 것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동진의 혜원(慧遠)이 세운 반야운태정사(般若雲台精舍) 곁에 당시의 현사인 유유민(劉遺民)·뇌차종(雷次宗)·주속지(周續之) 등이 함께 시주하여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다. 그래서 그곳을 연사 또는 백련사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것을 모방한 연사라는 것은 향도단체를 의미하며, 그것이 열린 곳이 귀산사였고, 그 절의 주지 계천(戒天)이 생도 30여명을 모아 각축부시를 하였는데 구재의 풍이었다고 한다.⁶⁷⁾ 이렇듯 고려말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모임이 하과이면서 향도였다는 것은 다음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설곡 정포(雪谷 鄭誥, 1309~1345)의 시문의 제목에 의하면, 이곡이 홍언박(1309~1363), 이달중, 이달존(1313~1340), 김두 등과 함께 날마다 향을 태우며 독서를 하였는데 효향회(曉香會)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문의 지은이 정포도 참여했다.⁶⁸⁾ 이들이 결성한 효향회는 독서하고 시를 지는 하과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향도인 결사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향도는 신라시대 이래 중앙의 고관들로 이루어진 향도부터 여성들만의 향도, 향촌 소민들의 향도 등이 있고, 불교 신앙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향촌 공동체적 기능이 강화된 향도도 나타났다. 그들의 활동 내용으로는 전기까지 불상·석탑·사찰의 조성 등 대규모 불사에 치중했던 데 비해, 이 때는 재회(齋會), 효향(燒香), 매향(埋香), 염불, 상호 부조 행위 등의 사례가 두드러졌다.⁶⁹⁾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은 이곡(1298~1351) 정포(1309~1345), 홍언박(1309~1363), 이달중, 이달존(1313~1340), 김두 등이었다. 그 가운데 김포는 최해(崔灌)의 문인으로 이곡(1298~1351) 등과 사귀며 시문과 글씨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양과 홍언박(1309~1363)은 공민왕의 모후인 명덕태후의 조카로, 1353년 동지공거로 지공거 이제현과 함께 과거를 주관해 이색 등 33인을 뽑았다. 그리고 이달중은 문하시중 이제현의 아들이다.⁷⁰⁾ 이러한 당대를 대표할 만한 문인과 그의 자제들이 참여하는 하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귀산사 뿐만 아니라 개경 근처 송악기슭에 위치한 안심사에서 열린 것이다.

문집류에 의하면 당시 국가에서 문을 숭상하기 위해 반궁(성균관)을 세워 구재를 열어 국

66) “二老翱翔去 諸公邂逅來 登山生道味 刻燭見天才 庭草窓含日 松風滿酒杯 斯文與名教 只恐兩摧頽”(이색, 〈同柳巷邀光陽君 觀夏課諸生 有雨不宜露坐 乃於龜山寺 刻燭賦詩 教官設酌 微醉而歸 從者柳巷次子尙敬 吾豚犬種學種善 門生宋文中 而適值者金湖姜淮仲辛權朴貫柳謙也〉, 《牧隱詩稿》 卷33, 詩.)

67) “玄陵設學慮何深 鼓篋升堂會若林 槐市向來殊寂寞 却從蓮社見青衿”(鄭摠(1358~1397), 〈到龜山寺 寺主戒天集生徒三十餘童教誨 刻燭賦詩 宛有九齋之風 喜而有作 贈天師〉, 《復齋先生集》 上, 詩.)

68) “奔走雖非爲此身 儒衣還愧路岐塵 遙知吾黨燒香會 醉後題詩少一人”(鄭誥, 〈寄望燒香會諸公 先生嘗與洪政丞彥博, 李稼亨穀, 金密直科, 李霽亭達中, 李摠郎達尊結社, 日以焚香讀書爲事 人號燒香會〉, 《雪谷先生集》 上, 詩.)

69)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 18)의 논저를 참조바람.

70) “夏課堂中秋滿天 尋僧往往思飄然 鏡龍一夜難忘却 細酌松醪聽雪絃”(이색, 〈追記夏課堂舊游〉, 《牧隱詩稿》 卷19, 詩.)

도의 선비를 길렀다. 하천도회에서 송악기슭에서 책을 읽고 각축시부를 하였고 토론 및 강습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곳은 안심정사 즉 안심사였고 이색·광양군(이무방)·정침서 등이 각기 시제를 베풀었는데, 이들을 좇은 제생은 민안인·민리·이종학·한상경·안경검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자는 김가구·임헌·염정수였다.⁷¹⁾

그리고 다른 시문에 의하면 12공도는 9재라고 칭하는데 나라의 동관이 산 기슭 자하동에 모여각축부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색과 한정성(한수)·염동정(廉興邦, ?~1388)이 9재에서 노닐었는데, 또한 이□□,⁷²⁾ 정침서(鄭簽書, 정충)을 만났다. 그들은 교관으로 제생(諸生)은 이종학, 문생 유경 그리고 한탐화랑(韓探花郎, 한수) 이교감(李校勘, 이무방)인데 각기 나누어 지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⁷³⁾

이색 자신이 16·17세무렵 수십 번 구재의 하과인 도회(都會)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밝히고 있고⁷⁴⁾ 한수도 이색이 안심사에서 제생이 각축부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적고 있다.⁷⁵⁾

이렇듯 사찰에서의 하과는 고려말에도 계속되었으나 다음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하과는 유생들에 의해 사찰에서 향교로 그 장소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1) “國家崇文教多術 大作津宮高硯硯 仍開九齋各授徒 僦僦青衿盈國都 夏天都會松山麓 讀書賦詩須刻燭 全篇警句世所知 討論講習仍孜孜 昔賢遺跡可對越 風移世變成挑撻 如今濂洛教初行 謳吟直欲求性情 風花月露置度外 肯復馳山兼走海 煉句煉意知者誰 事用語無所師 咎實在我內自愧 邯鄲學步今爲最 成均滿庭芳草生 白頭臥病難忘情 九齋賦詠又如此 何以償吾平昔志 幸哉松風吹面涼 白雨忽爾催詩狂 聯翩封君我最病 邂逅同風玉相映 沈吟數首宰相行 致君堯舜開太平 非吾恃老自誇大 敢請諸生更傾蓋 茲游奇絕冠平時 幸我同志觀吾詩”(李穡(1328~1396), 《昨至九齋坐松下 松陰薄 日將午 熱尤甚 於是告諸生曰 入紫霞洞 就涼冷處賦詠如何 諸生踴躍導行 至安心寺前亂水坐南岸 刻燭出題 燭未半 雨驟至 引諸生走入寺 衣巾盡濕 殊有佳致 賦三詩 曰松風 予所命也 曰宰相行 光陽君李先生所命也 曰驟雨 上黨韓先生所命也 初持馬報僕者 閔祗候安仁也 從僕者 閔令中理 豚犬種學也 從上黨者 乃子尚敬 壻安景儉也 其邂逅者 典校令金可久 典法摠郎任獻 典校副令廉廷秀也 既歸 頽然困臥 及覺 眞如夢中 歌以錄之 日已高矣》, 《牧隱詩稿》 卷18, 詩.)

72) 《목은시고》; 《한국문집총간》 4, 337쪽에도 落字로 되어 있어 누군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이무방이 아닐까한다.

73) “十二徒稱曰九齋 國中童冠集山崖 賦詩刻燭才何疾 勸學興文意甚佳 渺渺紫霞光射席 層層寶樹影侵階 同游又是高流在 嘯詠聲中開好懷”(李穡, 〈初六日 穡與韓清城 廉東亭 同遊九齋 又邀李□□ 鄭簽書 其從者豚犬種學 門生劉敬 而韓探花郎 李校勘 則隨清城者也 於安心精舍 刻燭賦詩 故其題曰 游安心精舍 又一題曰 槐 既放榜 教官以酒食見餉 醉飽而歸》, 《牧隱詩稿》 卷24, 詩.)

74) ‘行年十六七 我已好吟哦 對策習助語 連年登顯科 塵埋絃欲斷 苔蝕劍難磨 重憶九齋日 悄然成短歌’(李穡, 〈靜坐偶記九齋都會 刻燭賦詩 第其高下 激厲諸生 亦一勸學方便也 予年十六七 連歲在其中 初年得魁四五度 次年二十餘度 皆無全篇佳作…》, 《牧隱詩稿》 卷19, 詩.)

75) 韓修(1333~1384), 〈陪牧隱先生至安心寺見九齋 諸生刻燭賦詩 明日先生示長篇 次韻奉答〉, 《柳巷先生詩集》 詩 陽村先生權近批點.

… 또 이 學校가 좁고 누추하니 마땅히 넓게 만드리라.” 하였다. 예전에 시내를 건너서 학교 동쪽에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매년 夏課 때가 오면 손님들이 와서, 諸生들을 그 아래에 앉히고 초에 글을 그어서 그 글이 타기 전에 시를 짓게 하였는데, 날씨가 덥다든지 비가 올 때면 사람들이 모두 곤란하게 여겼다. …⁷⁶⁾

위의 글에 볼 수 있듯이 하과가 향교의 건물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조준(趙浚)의 상소문에서도 하과가 향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사헌 趙浚 등이 상소를 하였다.

“…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국가의 치란과 정치의 득실이 이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요사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해이하여 무성한 풀밭이 되었는데, 鄉愿으로 儒名을 핑계하여 군역을 피하는 자들이 여름 5, 6월 사이에 동자들을 모아 唐·宋의 절구를 읽고, 50일이 되면 파하고서 이를 '夏課'라고 하는데, 수령이 된 자들도 이를 보고 범연히 여겨 일찍이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경의에 밝고 행실이 닦인 선비를 얻어서 국가의 다스림에 도움을 주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근실하고 민첩하여 학식이 넓은 사람을 교수관으로 삼아 5도에 각기 1명씩 나누어 보내어 군·현을 두루 다니게 하고, 그 마필과 접대는 모두 鄉校에 맡겨서 이를 주관하도록 하소서.

또 州·郡에 한가로이 있으면서 유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본 고을의 教導로 삼고, 자제로 하여금 항상 四書五經만 읽고 詞章은 읽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수관은 쉬지 않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과정을 엄격히 세우고, 몸소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여 그 통하고 통하지 못한 것을 상고하여 이름을 올려 명부에 쓰고, 인도하고 권장하여 진실한 인재를 이루게 하십시오. 인재를 많이 배출시켜 효과를 거둔 자는 계급을 거치지 않고 뽑아 쓸 것이며, 만약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한 자는 벌을 논하도록 하십시오.…⁷⁷⁾

이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찰에서 실시되었던 하과는 고려말에 이르면서 향교에서 담당하도록 상소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리학의 유입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리학의 유입과 조선건국 시책에 의하여 사찰에서 하과는 없어져 갔지만 유생들의 사찰에서의 독서는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전 시대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리고 세종조 유생의 사가독서제로 계승되었다고 할 것이다.⁷⁸⁾

76) 이곡, 〈金海府鄉校水軒記〉, 《稼亭先生文集》 卷2, 記; 《동문선》 권70記.

77)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원년, 12월조.

78)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V. 나오는 말

이상으로 고려시대 사찰에서 이루어진 유생의 하과와 사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는 관학의 부진으로 사학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교육제도의 비현실성 때문이었다. 즉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출사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관리등용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였다. 그러나 공적 교육기관인 국자감은 과거준비와는 거리가 멀었고 더욱이 과거 출제자 지공거 출신의 관료가 관직에서 물러나와 학교를 세운 것이 공도(公徒, 또는 徒)다.

최초의 공도의 설립자인 최충은 신라말 최고의 유학자 고운 최치원과 고려초 최고의 유학자라고 할 최승로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유학자였다.

최충은 공도를 창립한 연원 내지 배경은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1880~1936)가 지적했듯이 신라 국선의 전통을 계승했다. 국선 가운데 용화향도의 결사체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 향도적 결사체는 불교신앙적 모임에서 출발한 공동체로, 사찰에서 하과를 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든 나말여초의 유학자 세 최씨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유불공유의 요소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분위기가 농후했음은 그가 지은 불교기문을 보아 알 수 있다.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는 여름 한철 공부를 사찰에서 하였는데 이를 하과를 실시하였다. 이를 모방해서 세운 11공도도 마찬가지로였고 하과는 여름철에 사찰을 정하여 시부를 짓고 주연을 베풀면서 유생들간의 유대와 학습을 한 것인데, 하천도회(夏天都會) 또는 도회(都會), 하과급작(夏課急作)라고도 불리었다. 이는 사찰이 한적한 장소라는 공간적인 이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교문화권의 소산이기도 하다.

현재 하과가 설행된 사찰에서의 학습내용은 각기 재(齋)에서 이루어졌는데 크게는 《9경3사》의 학습과 정해진 시간내에 시부를 짓는 이른바 각촉부시(刻燭賦詩)였다. 이러한 사찰에의 하과는 12공도가 폐지되는 고려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예종대를 거쳐 인종대 관학이 정비되면서 사학 12공도가 국자감에 예속되어 그 위상이 하락되었다.

그러한 변화속에 중요한 사실은 사찰에서의 하과가 공적 교육제도 속에 포용화되었고 수업내용도 《9경3사》에서 시부로 전환되어 갔다. 또한 하과는 고려후기로 갈수록 애초의 향도적 요소가 짙어갔고 일부 하과는 사찰에서 공적교육인 향교로 이관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이는 성리학의 수용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된다.

하과가 이루어진 사찰은 최충의 문헌공도가 이용한 귀법사가 가장 유명하며 그 외에 용흥사·귀산사·일월사 안심사 등 개경의 근처에 있는 사찰들이다. 최충의 문헌공도 외에 다른 11도의 사학도 각기 사찰을 이용해 하과를 실시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실상은 찾아지지 않고 있다. 하과의 학습과목은 시부를 짓는 것이었지만 사찰 가운데 9재의 교수과목 가운데 귀법사의 성명재나 일월사의 낙성재에서 볼 수 있듯이 9재의 교수과목별로 하

과가 이루어진 듯 하다.

문집류에서 남아 있는 제 기록을 검토하건대 고려전기 하과가 실시된 사찰은 개경 송악산 기슭에 위치한 귀법사와 용흥사, 일월사였다. 그리고 고려 원나라 간섭기이후에는 역시 개경 근처의 귀산사와 안심사에서 하과가 이루어졌고 고려말 하과가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찾아지고 있어서 주목된다.

현재 사찰의 하과에서 참여한 인물은 그것을 주관한 과거출제자인 지공거와 공도의 하과출신의 과거급제자들이 소위 좌주문생관계를 이루었고 같은 해 과거급제자들이 동년회와 같은 모임을 결성하여 당대의 정치는 물론이고 교육 문화를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동년회 등을 통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조선시대와는 달리 고려의 수평 지향적 사회구조를 이루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고려말에 이르러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하과는 사찰에서 향교로 점차 장소가 바뀌어가고 있었으며, 결국 조선조 불교의 대탄압시책의 중요골격이 완성되었던 세종조에 사가 독서제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류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도경》,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동사강목》, 《파한집》, 《보한집》, 《동국이상국집》, 《동안거사집》, 《서하집》, 《남양집》, 《지포집》, 《가정집》, 《목은집》, 《복재집》, 《설곡집》, 《청정관전서》, 《고려묘지명집성》, 《한국금석전문》.

2. 논문류

- 김일환, 〈최충의 사학의 교학정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10, 1989.
 박성봉,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과 사학 12도〉, 《사충》 2, 1957.
 박찬수, 〈사학 12도의 변천〉, 《택설 허선도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박청호,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과 사학 12도의 공적〉, 《사충》 2, 1957.
 신채호, 〈조선역사상 1천래 제일 대사전 3. 郎儒佛 三敎의 정치사상 투쟁〉, 《조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한국사연구초》, 을유문화사, 1974. 155쪽.
 신천식, 〈고려시대 사학 12도에 대한 연구〉, 《서암 조항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신천식, 《고려 교육제도사 연구》, 형설출판사, 1983; 신천식,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1995.
 이만규, 《조선교육사》 1, 거름, 1988.
 이병휴, 〈여말선초의 과거교육-서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67, 1975,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한보광, 〈신앙결사의 유형과 그 역할〉, 《불교학보》 30, 1993.

허홍식, 〈제 2장 불교사회사에서 본 중세의 범위〉,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일조각, 1994.

원고접수 : 2006년 5월 28일 1차 심사: 6월 10일 게재승인일: 6월 20일

연구자 소개: 황인규

① 전공: 한국중세사 및 불교사 / 소속: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② 관심영역 : 한국중세 불교와 여성 그리고 교육

③ 주요논저 : 『무학대사연구-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다시보는 한국의 고승』.

④ E-mail: hwinq@dongguk.edu

Abstract

The Hakwa(夏課); Midsummer's Short Lecture Course
of Confucians Scholars Student of Confucianism
at Temples in the Koryo Dynasty

Hwŭng In-Gyu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trace Scholar's Student of Confucianism's a short course of study during the summer at Temples in the Koryo Dynasty. But because only a few manuscripts and documents related with Buddhist history have been left, I have been very difficult to find a true history at that time. Moreover, the documents left to the present were the neo-confucianist-oriented writings and documents. And so, the limits these documents had were so deep that the understanding about true history of the Buddhism itself was very difficult.

Scholar's Student of Confucianism were educated by Sahaks(私學); 12 Gongdo(公徒) They took a short lecture course during the summer at temples. It was called Hwakwa(夏課), or Hacheondohoe(夏天都會), etc.

They went within Gaekyeong temples, and took a (short) course poem and improvisational poetic writing or a feast party such as Guibup temple(歸法寺) Yongheong temple(龍興寺) Illweol temple(日月寺) 龜山寺(Goosan temple) Ansimsa temple(安心寺).

After the examination(科擧) the man who pass the examination enter into the officials from a peculiar connection and they are called Jajoo(座主) Moonsaeng(門生). Not only were took the lead They, political circles but also of the educational world.

They had its origin in Buddhism Tradition which was organized themselves into a society such as Hyangdo(香徒). Because the dominating culture and intellectual trend was originated from the combined ideologies between Buddhism thought.

Key words : SaHak(私學), Gongdo(公徒), Hakwa(夏課), Hyangdo(香徒), Guibup temple(歸法寺), Yongheong temple(龍興寺), Guisan temple(龜山寺), Illweol temple(日月寺), Ansimtemple(安心寺), Chaichoong(崔冲)